



## 21세기의 세계적인 중국학 센터로 거듭나는 '현대중국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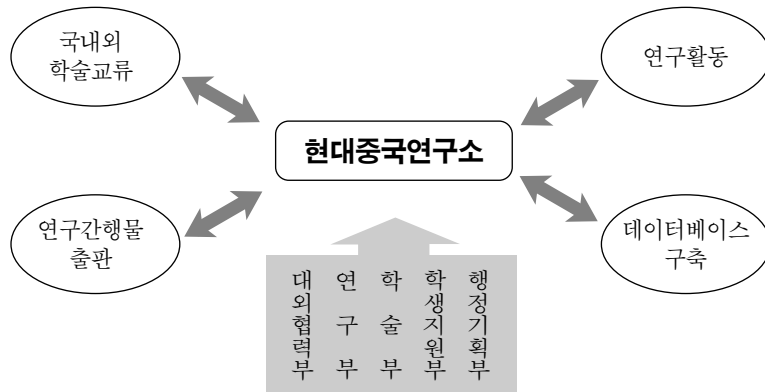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1992년 한중외교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되면서 양국의 교류는 급속도로 확대되어, 지난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2대 무역국과, 제1위의 해외투자대상국이 되면서 중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나라가 되었다. 특히 중국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일찍이 '현대중국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활동에 매진해 왔다.

1989년 11월 성균관대학교 부설연구기관으로 출범한 현대중국연구소는 지금까지 현대 중국의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폭넓은 연구들을 진행하여 왔다. 출범당시부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수행과 중국연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1997년에는 '현대중국연구소 VISION 2010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의 세계적인 중국학 센터'로 거듭나려는 비전을 가지고 현

재 2단계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성균관대학교 내에서 '대(對) 중국관련 연구의 대표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1999년도에는 연구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향후 2010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중국학 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국연구소는 소장인 경영학부 김용준 교수를 중심으로 7개 학부, 23명으로 구성된 본교 연구위원과 16개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외부연구위원, 그리고 5명의 상임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중국 관련 전문가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중국연구소의 연구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 전략, 현지에서의 활동체계, 성과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현대중국연구소는 21세기 세계적인 중국학 연구센터라는 비전하에 국제학술심포지움, 국제학술강연회, 대외협력사업, 산학연구활동,



(그림 1) 현대중국연구소의 개요

출판활동 등 5개 분야의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현대중국연구소는 19회의 국제학술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1990년 6월 제1차 국제 학술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2회의 중국의 문화, 정치, 경제, 경영 관련 국제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가장 최근의 학술 심포지움은 2003년 10월에 열린 심포지움으로서 현대자동차와 한국경제신문사의 협찬으로 중국대학의 교수들과 현지 기업인들이 참여하여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현대중국연구소는 2003년 1월부터 자구적인 연구성과 중심의 노력에 의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3년도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 분야 지원사업단'으로 선정되어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중국소비자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5대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충칭, 선양)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과제는 도시별로 소비자들의 선호경향과 취향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얻고자 한다.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에는 거점을 두고 그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지역마다 다른 소

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현대중국연구소는 현재 '세계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하며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5억 원에 이르는 중국관련 연구기금을 확보하고 5명의 연구교수를 초빙하여 연구 중에 있다. 5명의 연구교수는 중국 톈진 난카이대학교의 부교수인 이동진 교수를 비롯하여 광주우중산대학교에서 온 주장환 교수, 베이징대학교 중문학박사인 홍준형 교수, 그리고 중국마케팅 전공의 박세환, 박승배 교수로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전략과 그 성과'라는 주제로 연구 중에 있다. 오늘날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영, 경제만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국내 연구소로서는 현대중국연구소가 유일하다.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이 활발한 현 시점에서 현대중국연구소의 특화된 연구는 앞으로의 한국과 중국의 관계 정립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현대중국연구소에 대한 상세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배경과 목적

1980년대 이후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과 구소련의 해체라는 세계사의 커다란 변화를 통해 동서이념의 갈등이 사실상 소멸되고 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간에는 정치·경제·문화 등의 교류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로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나라와 중요한 역학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중국연구소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후 현대 중국의 정치·경제·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인 연구들을 통해 중국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교류의 주체자로서 미래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능동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다(1989년 11월).

## 2. VISION 2010 장·단기 발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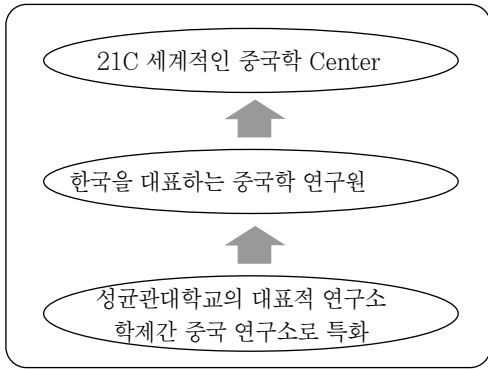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는 1997년 '현대중국연구소 VISION 2010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에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중국학 센터를 목표로 현재 2단계 발전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 단계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단계(1997년~2000년) : '학제간 연구소'
  - 연구 인프라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
  - 성균관대학교의 대표적인 연구소로 성장

- 2단계(2001년~2005년) : '한국을 대표하는 중국학 연구원'
  - 국제화 도약시기
  - 중국현지 교수를 연구교수로 초빙 (박사급 연구원 5명 확보)
  - 국제적인 학술교류와 연구 활동을 적극 추진
  - 중국관련 연구기금 5억 이상 확보
- 3단계(2006년~2010년) : '21C 세계적인 중국학 연구센터'
  - 중국관련 국제저널의 발간
  - 중국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박사급 연구원 10명 이상 확보
  - 연구기금 10억 이상 확보

## 3. 기구조직

- 사업부제의 운영조직 구조
-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장, 위원 부총장 외 5부 부장): 의결 및 집행기구
- 연구 인력: 연구위원(연구교수)과 특별연구원 및 연구조교
- 대외협력부
  - 중국대사관 및 동양학센터 등 타기관과의 대외협력관계 및 학제간 연구 추진
- 연구부
  - 『현대중국연구』등의 발간사업과 중국연구회(Colloquium)등의 연구 활동 지원
  - 중국학총서 발간
- 학술부
  - 국제학술심포지움 및 국제학술강연회 등을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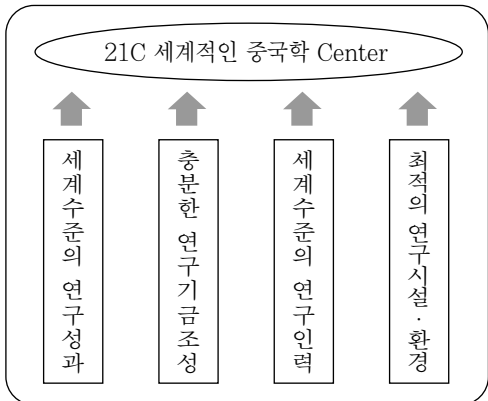


(그림 2) 현대중국연구소 장·단기 발전계획

- 학생지원부
  - 경영/경제 연구회와 정치/사회연구회로 구성된 중국연구회를 지도
  -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 교내 학부생들을 선발하여 중국을 체험할 수 이끈 기회를 제공하는 '중국탐사대' 운영
- 행정기획부
  - China Business Program을 기획관리
  - 'VISION 2010 장·단기 발전계획' 추진

#### 4. 주요활동

##### 1) 4대 중점 육성분야



##### 2) 연구 활동 및 교육지원활동

- 중국연구 국내외의 프로젝트 수행
- 국내외 중국관련 연구소와 전문가들과의 학술교류
- 출판 및 연구 간행물 발전: 『현대중국연구』
- 연 2회 이상 국제 학술심포지움 및 학술강연회 개최
- 중국연구 콜로кви움 개최
- 연구소 산하 '중국연구회' 주관 및 교육지원
- China Business Program 개설 추진
- 국내외 중국연구 문헌자료 보유 및 제공
- 중국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제공
- IMI 중국학 총서 출간

##### 3) VISION 2010 1단계 발전계획 방향과 사업

